

2024 MBC 파리 하계올림픽 중계방송 제작기

글. 최재규 MBC 제작기술국 제작기술팀 음향제작파트 사원

Paris, Paris!

예술과 낭만의 도시,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곳. 2024년 파리올림픽이 무사히 막을 내렸다. 시선이 향하는 모든 곳이 그림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도시, 파리. 세계 최초로 야외에서 개최된 개막식부터 거대한 콘서트홀을 방불케 했던 폐회식까지 이곳 파리에서 직접 올림픽을 중계했던 경험을 적어보고자 한다.



그림 1. 파리올림픽 홍보물로 꾸며진 파리시청사

그림 2. 길거리에 걸린 파리올림픽 홍보물





파리는 지금 공사 중

파리에 도착 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도시 곳곳에 붙은 PARIS 2024 홍보물, 그리고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수많은 공사 현장들이었다. 2022년 여행으로 이곳 파리에 도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도시의 풍경들이었다.

현지의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re)는 엄밀히 말하면 파리에 위치한 것이 아니었다. 파리 최초의 공항이 위치한 ‘르 부르제(Le Bourget)’라는 지역에 있었으며, 우리들끼리는 농담 삼아 IBC가 의정부나 동두천쯤이 아닐까 말하기도 했었다. IBC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30분이 걸릴 정도로 외딴곳이었고, 파리 시내까지는 거의 1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다.

IBC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AD(Accreditation) 카드 등록절차였다. 이미 한국에서 수령해 온 AD 카드를 이곳에서 유효화 절차를 거쳐야 IBC와 경기장 출입이 가능해진다. 처음 택시를 타고 내렸던 곳과 등록절차를 위한 장소까지 거리가 꽤 되어서 30분 정도 걸었던 기억이 있다.

IBC의 MCR(Master Control Room)은 생각보다 넓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송출 준비를 할 생각을 하니 벌써 막막한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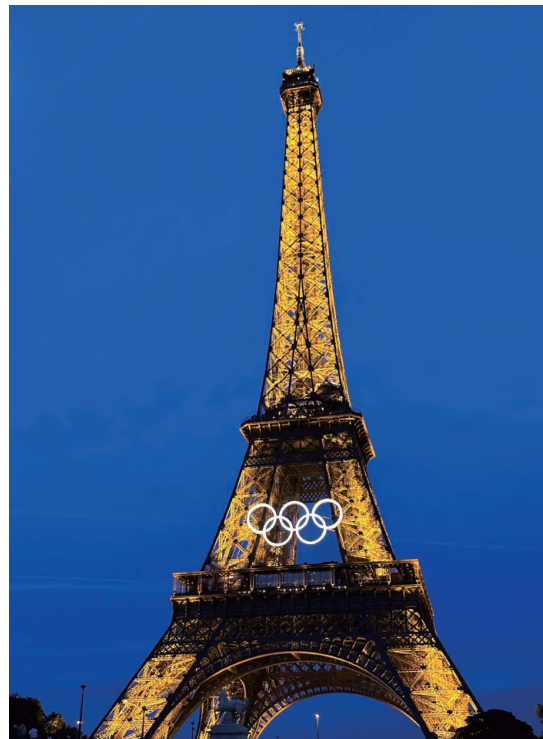


그림 3. 오륜기가 걸린 에펠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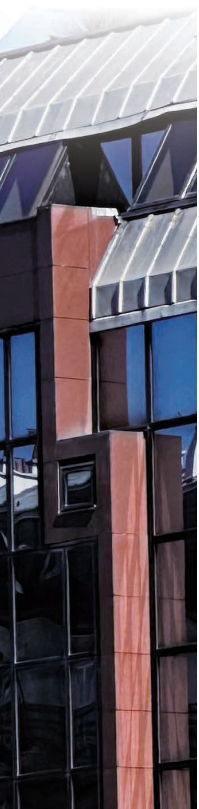


그림 4. 텅 빈 MCR

시스템 구성

IBC에서 상암 MBC까지는 총 14개의 회선을 구성하였다.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로부터 50여 개의 IS(International Signal, 국제신호)를 수용하여, 이들 중 대한민국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 혹은 중요한 경기를 골라 서울로 전송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수많은 IS는 70인치 모니터를 통하여 모니터링되었고, 가운데 70인치 모니터를 설치하여 방송에 필요한 신호들만을 확인하도록 설계하였다. 서울로 전송하는 14개의 신호 중 8개의 회선을 MCR에서 사용하였고, 나머지 회선의 경우는 취재 및 보도 LTE 장비를 통하여 직접 서울로 전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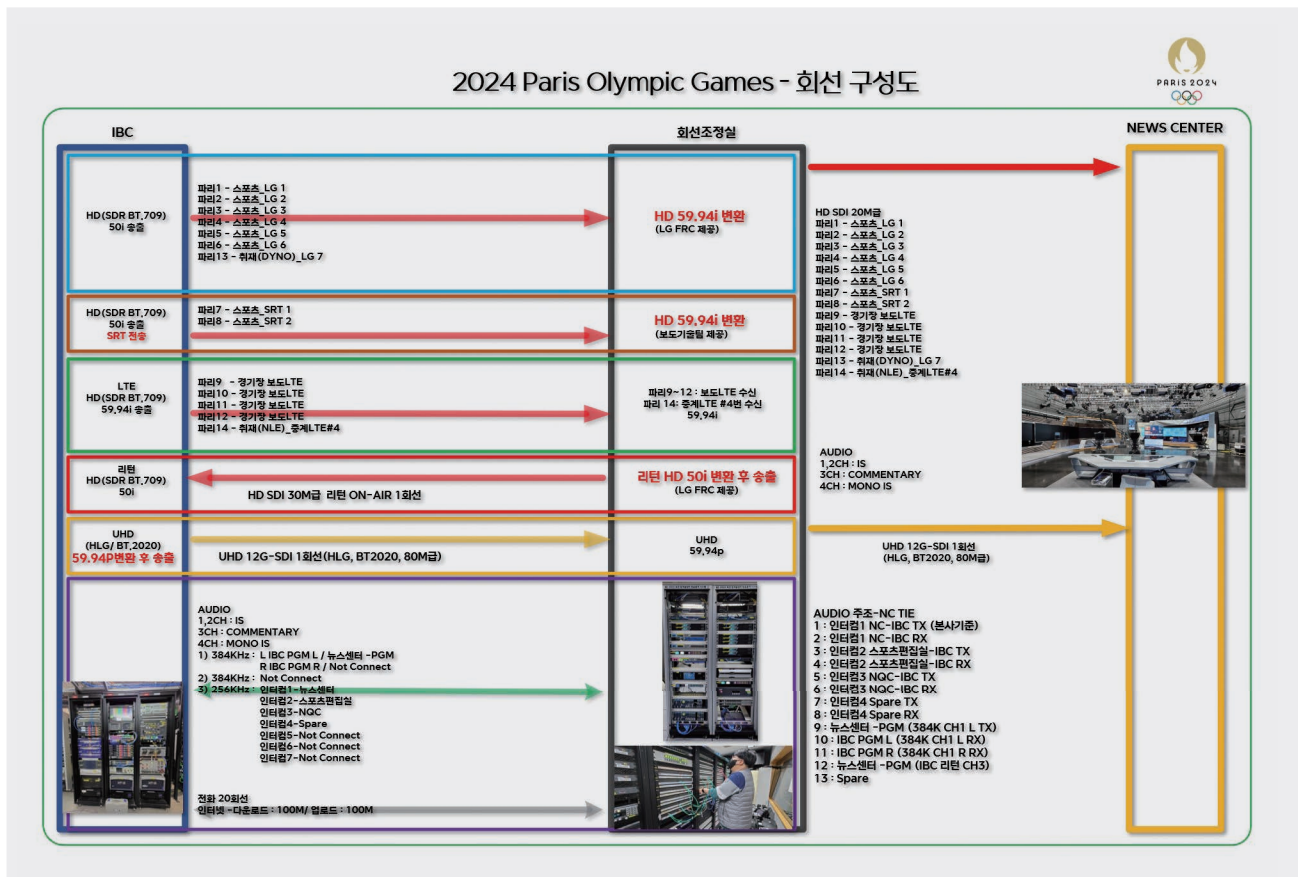


그림 5. 2024 파리올림픽 회선 구성도

각각의 IS 신호에는 경기장의 생생함이 살아있는 현장음이 임베디드(Embedded)되어 제공되고 필요에 따라 MCR의 Off-Tube에서 Commentary를 합쳐 주거나 Venue에 나가 있는 현장 해설진의 해설을 넣어 주었다. Venue의 Commentary석에서부터 들어오는 해설은 현장의 CCR(Commentary Control Room)로 수용되며 이후 IBC의 CSC(Central Switching Centre)로 전달된다. 이후 각각의 방송사로 분배해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MBC는 양궁과 펜싱을 고정 코멘터리로 신청하였고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Bookable 라인을 2개 따로 신청하였다. 이는 후에 배드민턴과 수영 경기장의 해설로 활용되었다. Off-Tube는 MCR 내에 3개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가 동시에 펼쳐질 경우 각각의 Off-Tube에서 해설자들의 해설을 레코딩한 후 임베디드하여 서울로 송출하였다.



그림 6. 설치가 완료된 MCR

파리에서 서울로 전송되는 신호들은 LG U+망을 이용하였다. 이때 방송 전송망은 이원화되어 전송되는데 IBC에서 출발한 신호는 파리의 로컬 사업자를 거쳐 해저케이블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전송된다. 이때 주·예비 라인을 구성하여 하나의 라인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하나의 라인은 이집트, 인도 등의 대륙을 통하여 한국으로 전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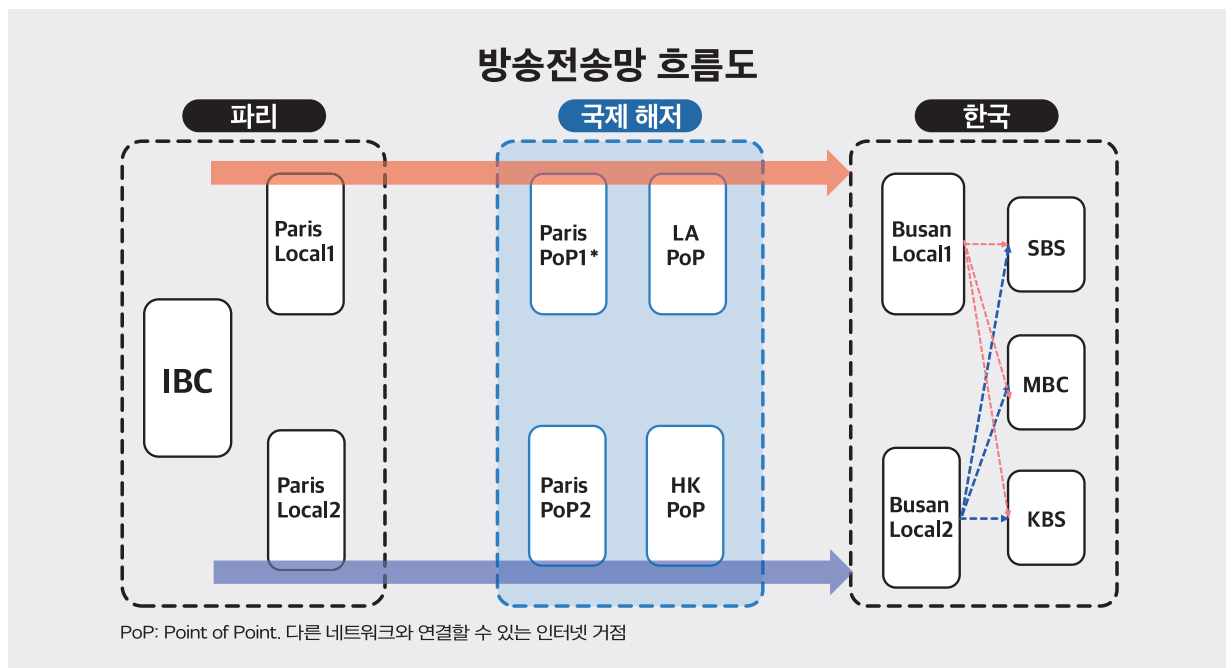


그림 7. 방송전송망 흐름도

예상치 못한 문제

서울에서 현지 MCR을 가정해 사무실에 미리 설치해봤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항상 예기치 못한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먼저 멀티뷰어가 말썽이었다. 장비를 구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장비 노후화로 인해 멀티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장비 노후화와 더불어 프랑스로 오는 과정에서 미세한 진동 또는 먼지로 인해 장비의 오동작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지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며 장비를 수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서울로부터 새 장비를 수령해 설치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 MCR(Master Control Room)과 너무 먼 CTA(Centralized Technical Area)로 인해 설치 시 곤란함을 겪기도 했다. 보통 MCR과 CTA는 문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CTA에는 수많은 장비의 본체가 존재하며, IS를 수신하는 장비가 위치한 곳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설치 기간에는 CTA와 MCR을 케이블로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하므로 SI(System Integration) 인원과 MCR 인원의 소통은 필수이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은 방화 정책상 몇 개 방송국의 CTA를 한곳에 위치시켜 유사시를 대비했다고 한다.



그림 8. 천장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케이블들



그림 9. 장비가 설치된 CTA

그러나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케이블을 날라야 했고, 실제로 MCR과 CTA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도 하루 걸음이 만 보를 넘기 일수였다. 또한 비상 상황 시에도 문제였다. 보통 비상 상황의 경우 물리적으로 패치하여 메인과 서버를 절체하는데 CTA와 거리가 있다 보니 언제든지 달려가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일하는 것은 필수였다.

햇빛을 피할 수 없었던 경기장은 현장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했다. 양궁 경기장은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앵발리드에서 진행되었다. 문제는 경기장을 포함하여 관중석과 코멘터리석 그 어디에도 차양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중들과 해설진들은 피할 수 없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했고, 실제로 경기 중 몇몇 관중들은 쓰러지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가열되는 장비였다. 뜨거운 열을 흡수한 ComCam(Commentary Camera) 장비는 가열되어 꺼지기 일쑤였고, 생방송으로 킴캠을 몰릴 때면 언제 꺼질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카메라를 위한 가림막을 만들어 열을 피하였고, 해설진들은 양산을 쓰며 중계를 진행하였다.

Paris 2024



그림 10. 차양막 없는 앵발리드 경기장

마치며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올림픽을 끝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 파리에서 올림픽을 중계할 수 있어서 소회가 더 뜻깊었다. IBC에 있을 때면 이곳이 프랑스인지 의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외진 곳이었지만, 종종 파리 시내를 방문할 때면 ‘그래도 이곳이 프랑스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 2달간의 시간 동안 IBC 내의 MCR 셋업과 중계를 경험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

함께 생활하며 잘 챙겨주신 선배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 고생한 MBC 파리올림픽 중계 스태프 및 현장 해설진들에게도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다음 올림픽은 LA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벌써 LA 올림픽을 기대하며 소중했던 파리올림픽의 기억을 마무리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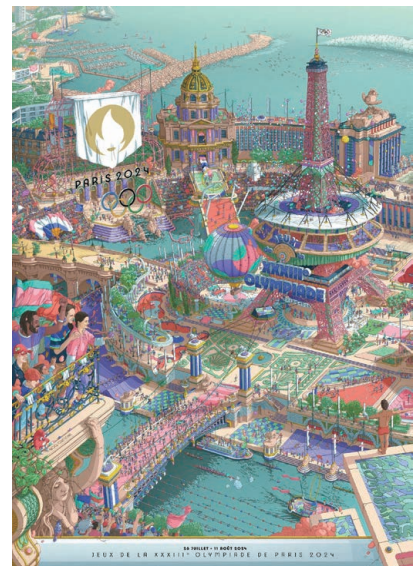


그림 11. 2024 파리올림픽 포스터